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5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조 선 로 동 당

제 287호 【루계 제 24700호】 주체 1 03 (2014) 년 10월 1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최 후 의 따라 승리 를 앞 으 로 향 하 여

김 정 은 동 지 께 경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과학기술을 국가발 전의 중대사로 내세우 시고 과학기술의 위력 으로 우리 조국을 하루 빨리 온 세계가 우러러 보는 천하제일강국으 로 일 떠세 우 시 려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에 떠받들리워 위 성과학자주택지구가 웅장화려하게 건설되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서 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 과 학 자 주 택 지 구 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최 태 복 동 지 , 최 룡 해 동지, 한광상동지,

김정관동지가 동행하였다.

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구를 보란듯이 일뗘세우는 자랑찬 성 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 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을뿐아니 용하기 위한 연구소를 내와야 한다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선군시 과를 이룩하였다. 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다.

자주택지구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주택지구는 24개 호동의 다층살림 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 놓아주면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풀어주시였다. 당창건 69돐까지 완공하여 과학자들에 집들과 학교,병원,탁아소,유치원, 적으로,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 살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도록 건설의 전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 고,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 탁아소와 유치원,학교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 게,새 세기 교육기지 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시공하였으며 종합진 료소와 약국 등 보건 시설들은 물론 위성원 을 비롯한 편의봉사시 설들도 성의껏 잘 지 었다고 평가하시였다.

파학자들이 문화정 음껏 할수 있게 공원 들도 멋있게 꾸려놓 았다고 하시면서 특 히 체육공원은 전문 체육시설 못지 않다 고 말씀하시였다.

을 위한 터밭도 배하고있으며 형 순 환 생 산 체 계 도입한 태양열온 실까지 멋들어지게 건설해놓았다고 기

애 하 는 경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위성과학자주택

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불 색라일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환경오염이 없고 생태환경을 파괴시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_ 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 _ 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 _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이 아 _ 지 않는 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 라 질좋은 가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 하시면서 현대적인 자연에네르기연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과학자 어졌다고 하시면서 모든 집들에 당에서 소를 일떠세울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파학 보살피심속에 솟아오른 위성파학자 주택지구의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마련한 천연색TV와 이불,집기류들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 2 면 으 로 계 속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과 감사를 주시였다. 적인 주택지구라고 말씀하시였다.

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그들을 위해서 학원이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주추 선 미학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택지구를 일뗘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 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을 위해 항상 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구는 영광스러운 <mark>김정은</mark>시대의 자랑찬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또 하나의 리상 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창조물로 길이 빛날것이다. 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파학연구 그러시면서 은정과학지구에 위성과학 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에

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본사정치보도반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통지께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 주식회사 리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짚트 리쓰 리사장이 13일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전달하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였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에짚트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기브 싸위

김 정 일 동 지 회 고 위 원

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에짚트전국회고위원

회가 2일 까히라에서 결성되였다.

라

야 자카리야 헤이룰라가 선출되 였다. 회교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짚트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야흐 로작들을 출판하고 출판보도물에 특 집하며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영 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 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끌며 인민대중을 새로운 조선속도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최후승리에로 령도하는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 에로 령도해온 력사는 세계 모든

혁명적당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과 나라 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늘도 래일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근 70년간 온갖 풍파와 시련을 헤치며 조선인민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 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 려세운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 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는 조선로동당을 혁명적당으로 건설 하시였다.

그분들이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 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들의 생활 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로동 당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시였으며 반동들과 제국주의자들이 두려워하 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 계 진보적인민들이 우러르는 현대적 이고 번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조선 을 건설하시였다.

우리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영웅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것이라고 확 신한다.

【조선중앙통신】

대양칭송의 환호성 오늘도 조국강산에 메 아 리 친 다

조국개선연설을 뜻 깊 수령님께서 하 신

을 진동시켰던 격정과 환희의 열풍은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서 잦을줄 모 른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은 온 나라, 온 겨레가 그처럼 목 마르게 고대하던 력사의 시각이였다.

선물을 드리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과도 같이 환히 웃으시며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

을 진감하고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쳐 갔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드린 향기그윽 한 꽃다발을 높이 들어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그이를 우러러 목

성이 우뢰와 같이 터져올라 하늘땅

청껏 환호를 올린 우리 인민.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워 하늘 땅이 캄캄하던 그때에 축지법을 쓰 시며 일제침략군을 때려부신 우리의 장군님은 저리도 젊으시고 저리도

걸출하신 영웅이시였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젊음과 열정에 넘 치는 름름하고 활달하신 모습, 예지로 빛나는 안광속에 조국의 창창한 미래 가 비껴있고 만면에 담으신 인자하신 미소속에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조국 의 무궁한 번영이 기약되여있음을

환영군중은 온몸으로 느끼였다. 그날의 광경을 당시의 한 신문은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 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

《평양의 력사가 깊어 4 천년, 인구 가 적지 않아 4 0만이라 하나니 일

지금으로부터 6 9년전, 삼천리강산 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 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 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름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 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삼천리강산을 진감시킨 그 열광적 인 환호는 성스러운 민족해방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영영 숨져 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에 대한 전인민적감사의 폭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정과 희망 에 넘쳐 파도처럼 설레이는 군중을 바라보시며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을 이끌어 이 땅우에 행복한 새 생활을 활짝 꽃피워야 할 숭고한 사 명을 무겁게 느끼시였으며 활화산같 이 타오르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힘에 의거한다면 능히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 으리라는 신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었으며 모란봉의 을밀대와 최승대쪽

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

의 래양이십니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민족대 단결사상의 승리의 력사로 찬란히 아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로 굳게 단

로새겨져있다.

결하면 강한 민족이 되고 갈라지면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신조로 간주해오신것이였다. 민족자주의 건국리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온 민족이 단결하고 다시

서도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는것이 수령님의 신념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 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 조선인민 의 단결을 새 조국건설의 가장 힘있 는 방도로 제시하시고 건국의 첫걸

금 외세의 롱락물이 되지 않기 위해

음을 힘있게 뗴신것 아니던가.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 력건설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순 간의 휴식도 없이 새 조국건설을 위 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 4 (1 9 4 5)년 1 0월 1 0일 우리 당창건 을 선포하신 후에야 인민들과 력사 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조국개선연설을 애 타게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어 공설운동장(당시) 은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 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 신의주,함흥,청진,해주 지어는 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열렬히 38° 선을 넘어 남조선 각지에서까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안고 많은 사

람들이 모여왔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서도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선 차적인 힘을 넣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 민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 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 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호소 하였다고, 우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민들과 만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이렇게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조국땅에서 우리 인민, 우리 민족 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지만 그이께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하신 호소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립던 조국인

단결, 전민족의 대단결이였다. 환호하는 수십만 군중에게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적인 자주독립국가 를 건설하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부강번영하고 문명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 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 평양시내와 시주변은 물론 멀리 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호소하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 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 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 회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 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잡을수 있다는 열화와 같은 조국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면 그가 로동자이건, 지식인이건, 자산가이건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부 흥발전을 위한 새 조국건설에 한사 람같이 펼쳐나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는 차게 이어져 더욱 빛을 뿌렸다. 환영군중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이 바로 오늘도 우리 민족 사에 뜻깊은 한폐지로 아로새겨져있 는 불멸의 호소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절절한 호소 는 그대로 단결의 기치밑에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자는 력 사적인 호소였으며 자주적인 새 민 주조선의 출발을 선포한 장엄한 메

바로 이때로부터 이 땅에는 단결 된 조선인민이 울리는 건국의 우렁 향이 차넘쳤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일관하게 구현되여온 민족대단결사 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지론 이기도 하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 써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 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와 넓은 도량, 크나큰 포옹력으로 민 족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다 묶어세우고 동원 시킬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우리 수령님,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할데 대한 우리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 은 혁명의 년대와 년대마다에 줄기

해방후 제반 민주개혁이 그처럼 복 잡한 정세속에서 짧은 기간에 성과 적으로 실시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 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이 창조될수 있은것도, 전후 우리 인민이 재더미 우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불바람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뗘세울 수 있은것도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 단결사상을 떠나서 어찌 생각할수 있

으라.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주적인 새 조국건설로선은 이렇듯 투철한 자주 의 신념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에 의 하여 마련된것으로서 우리 조국과 민

찬 마치소리와 민족부흥의 벅찬 음 쪽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준 주체적인 국가건설의 불멸의 대 강이였다.

민족대단결사상으로 자주적인 새 조선건설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자 주적결단이 있어 우리 인민은 건국 의 첫걸음에서부터 참다운 민족자주 와 번영의 넓은 길을 힘차게 열어나 갈수 있게 되였다. 그것이 우리 민족 의 오늘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조 국의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를 확고 히 담보해주는것이였기에 세상사람 들은 오늘도 민족운명개척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감탄을 금치 못하 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다운 삶을 누 릴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앞에 부끄 럽지 않게 살도록 온 겨레를 넓은 품 에 안아 믿어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천만년세월이 흘러

도 잊지 않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9년전 해방의 기쁨속에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터뜨린 만세

의 환호성,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6 9년전 금수강산을 진동시 킨 태양칭송의 환호성은 오늘도 조

국강산에 메아리친다. 온 세계가 우러러볼 강성조선의 래

일이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혁신을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로관리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모든 기관, 기업소, 현동농장들과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이 사업에 총동원되 여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 원사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 키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이번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 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모든 사업이 그러한것 처럼 가을철국토판리총동원사업 에서도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상 박호영:옳은 말이다. 국 토관리는 나라의 전령토를 포괄 하는 대단히 폭넓고 거창하며 장 기성을 띠는 전망적인 사업이다. 나무모생산과 심기, 도로건설 과 기술개건, 강하천정리, 연안, 령해관리,거리와 마을꾸리기, 환경보호, 자연보호 등 국토관리

사업에서는 그 어느 한가지도 소

홀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국토

판교군에서 림진강제방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여 큰물로부터

군소재지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 기에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

OI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

들은 새롭게 변모된 림진강의

오늘의 모습에서 보다 아름답

게 전변될 군소재지의 래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흘러들고 사래가 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

림진강은 길이가 수백km인

군,이천군,철원군을 지나

장마철에 무더기비가 내릴

때에는 리상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하천들의 많은 물이 이 강

으로 흘러들면서 그 량이 수천

특징적인것은 군소재지일대

매가 급하여 흐르는 속도가 빠

른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장

지역이 피해를 입군 하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림진

강제방공사를 당의 국토관리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설

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계를 앞세웠다.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들속에 들어가 이 공사의

의 강폭이 백수십m이지만 물 🔘

m³로 급격히 늘어나군 한다.

저히 세워야 합니다.》

한강과 합쳐진다.

보다고 한다.

국 토 환 경 보 호 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리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할수 여 높아진 강하천바닥을 파올려 정하고 로력과 자재,설비를 집

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이 진행된 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만 보더라도 가을걷이와 낟알털 기, 수매, 건설, 겨울나이준비 등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올해 가을철국토판리총동원기 간에도 수백km의 도로기술개건과 4 0 0 여km의 강하천정리, 백 수십만그루의 나무심기, 100 여개소의 다리보수 등을 겨울철 이 오기 전에 해야 하므로 품이 많이 드는 대상을 바로 정하고 날 자별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

초하여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자: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력량 을 집중하는가.

국장 홍정범:지금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도로기술개건 공사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의 중요항목으로 제기하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가을철에 진행되는 도로기술개 건공사는 겨울을 앞두고 하는 사 업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겨울철 에 륜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과 있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이 공사 에 대중을 조직동원하고있다.

륜전기재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자동차들이 대형화, 고속화되고있 는 오늘의 현실은 도로의 견고성 과 문화성을 더 잘 보장할것을 요 구하고있다. 이로부터 각지 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겨울철에 륜전기 재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폭이 좁은 구간은 넓히 고 구배가 심한 구간은 낮추며 곡 선펴기와 옹벽공사도 하고있다. 겨울철에 눈이 내렸을 때 륜전기 재들이 령길을 무사히 달릴수 있 게 미리부터 모래준비를 잘해놓는

문제도 놓치지 않고있다. 강하천정리공사에도 힘을 넣 고있다. 올해에는 례년에 보기 드문 왕가물로 하여 전반적지역 에서 큰물에 의한 피해는 없었 다. 그렇다고 강하천정리공사를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다. 여기 서 기본은 높아진 강하천바닥을 파내여 제방을 쌓는것이다. 물 론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강 하천정리공사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세우자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도, 시, 군들

에서는 설계를 앞세운데 기초하

나 눈

제방을 쌓고 장석을 입히는데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나무종자 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 에 품을 들이고있다. 올해에도 눈이 내리기 전에 수백t의 나무종 자를 채취해야 한다. 때문에 각 지 산림경영소들에서 많은 력량 을 나무종자채취에 돌리였다.

기자:현재 전국각지에서 가을 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알고싶다.

처장 안동철:도로건설과 기술개건, 강하천정리사업이 힘 있게 진행되고있다. 청천강계단 식발전소가 건설되는 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도 로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도로기술개건공사도 추진되고 있다. 평양시, 회창군, 금강군, 허천군, 락원군, 대홍단군, 은률 군, 재령군, 자성군을 비롯한 모 든 시, 군들에서 도로기술개건 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강하천정리공사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안주시, 신도군, 경흥군, 경원군, 무산 군, 온성군, 영광군, 백암군. 삼 천군들에서 강하천정리공사에

71

웠을뿐아니라 벽을 모두 긁어내

고 미장을 한 다음 여러가지 색

갈의 환한 외장재를 발라 거리

그뿐이 아니다. 거리중심도로

량옆에 태양전지가로등을 세워

밤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고있다. 로라스케트장과 정

구장, 배구장도 새롭게 일신되

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모두가

함흥시방향에서 도시로 들어

오는 입구가 몰라보게 변모되였

다. 밝은 색의 타일을 붙여 한결

산뜻한 느낌을 주는 편의봉사기

지들의 겉모양도 멋있었지만 내

이러한 성과들은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없는것도 있고 부

족되는것도 많았지만 시일군들

은 진정한 보람은 인민을 위해

더 많은것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해당 부문 기술자들과 함

우시군에서 나무종자채취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으며 군에서는 10여종의 나

무종자를 마련하는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기하였다.품

을 들여 현대적으로 꾸린 나무

모생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자면

종자부터 해결해야 하기때문이

였다. 그런데 나무종자가 긴장

획을 22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제176호

께 설계를 앞세운데 기초하여 세

부 역시 흠잡을데 없다.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력량을 집중하여 그 면모를 일 신시키고있다.

처장 립춘철: 온 나라를 수림 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정주시. 대판군, 백암군, 동신군, 시중군, 김형권군, 정평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에서 나무종자채취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선군시 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강계시, 신포시, 우시군, 대홍단 군 등 많은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고있다.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 의 요구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 지에 나간 그들은 도로건설과 기 술개건, 강하천정리공사 등 국토 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공법의 요구 를 철저히 지키도록 실천적모범 으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기자: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 당의 뜻대로 온 나라를 사회주 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가 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중 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 중하여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창조되리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멘트와 강재, 혼석 등 자재를 마 련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 이 뛰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이 열렬한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짧은 기간에 해안가와 거리의 면모를 선군시 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면서 수 백m의 우수망공사를 하고 질좋 은 외장재도 자체로 만들었다.

할 일이 더 많다. 본격적인 단계 에서 진행되는 방파제건설도 완 공해야 하고 미래원도 일떠세워 야 하며 화초온실도 건설해야 하는것이다.

행복을 위해 바친 노력은 보 람있다. 오늘도 일군들과 로동 자, 사무원들은 이런 한마음을 안고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 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 으로 전변시켜나가기 위한 투쟁

평 안 남 도 일 군 들 과 평안남도에서 신양군 선행시켰다.이와 함께 심금을 의 지수역으로부터 회창 울리는 선전선동사업으로 대중

군까지의 도로포장을 위

한 로반공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으로 난관을 뚫고나가며

애국의 땀을 바쳐 로반공

사계획을 90%이상 수

행하였다. 이 성과를 계

속 확대하면서 구조물공

사와 도로포장을 위한 골

재운반을 다그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

를 발전시키고 인민들

의 생활상편의를 보장

할수 있으며 국토의

이 공사는 30여km

구간에서 도로의 폭을

넓히고 포장해야 하는

도일군들은 경제발전

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

를 보장하는데서 견고하

며 문화적인 도로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공사를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

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

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

부를 꾸리고 설비, 자재준비를

● ■ 면모도 일신할수 있습

어려운 대상이다.

였다.

M LICH. »

히

로

챘

01

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 단계와 단계별목표를 바로 정하 고 시공지도를 짜고들면서 지휘 를 패기있게 하였다.

도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일 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에 힘차 게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사시 작부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 이 바치였다. 이들은 도로는 나 라의 얼굴이며 문명수준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맡겨진 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도로급수와 기술규정의 요구 에 맞게 도로폭을 넓히고 로반 을 조성하며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높이 발휘하였다. 확장된 도로에 혼석 을 펴는 작업과정에 혼석채취장 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러가지 애로와 난판이 제기되

하지만 이들은 무엇이 불가능 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 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을 되새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 신을 높이 발휘하고 합리적인 방 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만m³의 혼 석운반을 성과적으로 해나갔다. 암반까내기작업장에서 더욱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공사

많이 드는 이 작업에 전투력이 강한 단위들을 동원시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 군인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지휘부에서는 제일 어렵고 품이

근 로 자 들

과 기픗을 따라배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을 가지고 처 음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 였다. 어느 한 령길 3km구간에 있는 수십m높이의 암반과 맞다 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집체적 지혜로 효과적인 발파방법을 받 아들이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 럼 공격속도를 높였다.

그리하여 예견했던것보다 한 달 앞당겨 암반을 까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강성국가건 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심정 으로 런일 위훈을 떨치며 연 수 십리구간에서 암반을 까제끼고 도로를 곧추 퍼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공사의 다 음공정들이 런이어 추진되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 할수 있는 창조물을 마련하자.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이런 불타는 열의를 안고 구조물공사와 옹벽 쌓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책 임적으로 하며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공사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앙 양된 열의에 의해 로반공사가 마 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도로포 장을 위한 준비사업을 따라세웠 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질좇은 모래원천을 찾아 운반하고 크기 가 맞춤한 자갈을 마련하여 규 모있게 쌓아놓으며 포장용골재 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갔다.

공사장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고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속에 도로포장을 위한 로반공사가 날마다 계속 추진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고향산천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초산군산림경영소에서-

림진강제방공사를 오늘뿐 아니라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견고하면서도 문화성있게 하자.

이런 드높은 열의로 가슴 을 끓이며 분발해나선 일군 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강 바닥의 큼직큼직한 돌을 담 은 목도를 메고 달리고 또 달 리였다.

제방장석공사를 맡은 일군 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한 《강하천들에 흙과 모래가 **그고** ㎡의 장석공사를 해도 서로 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가면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 장하였다. 데 법동군에서 시작하여 판교 🕨

그 나날에 이들은 7 000 여m³의 강바닥돌을 운반하여 천수백m구간의 림진강제방에 4 000여㎡의 장석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방우에 흙다 짐을 하고 잔디를 심었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이 일 대가 천지개벽되였다. 이 강이 정리되기 전에는 여러곳에 큰 물피해흔적들이 있었다. 림진강제방공사가 성과적 으로 되여 이젠 군소재지가 마철에 오랜 시간 무더기비가 🔁 🛮 큰물피해를 모르게 된것은 물

내릴 때에는 군소재지의 일부 🗖 론 이 일대에 양묘장이 새로 꾸려져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군일군들과 로동 자, 사무원들은 변모되는 림 진강에서 더욱더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될 고향산천의 래

일을 그려보며 국토관리사업에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フト

해안도시 특성이

堊

가 한결 밝아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

을 꾸리는데서는 때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라나게 하여야 합니다.》 신포시가 해안도시의 특성이 살아나게 변모되고있다. 바다기 슭의 유보도와 그 주변이 번듯 하게 정리되고있다. 다가올 겨울 을 예고하는듯 찬바람이 불지만 품을 들여 심은 새 품종의 잔디

일대의 특성이 살아나고있다. 바다기슭으로 수백m의 방파제 가 뻗어나가고있다.

는 푸른 빛을 잃지 않고 평양단

풍나무잎은 더욱 붉게 물들어 이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방파제 건설이 완공되면 그 어떤 해일에 도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 게 된다고 한다. 시일군들과 로동 자, 사무원들이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완공할 높은 목표를 제기 하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시안의 여러 수산기지들이 변 모되고있다. 울타리와 건물들이 일신되고 휴식터들이 보다 현대 적미감이 나게 꾸려지고있다.

시의 얼굴이 살아나게 꾸리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시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변하고 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 들이 떨쳐나 고층건물들의 지붕 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다시 씌 본사기자

М

일군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하지만 해놓은 일보다 해야

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나무종자에 운 비观 死 对

하였다. 창성이깔나무종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올해 가을철에 는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나무모 밭을 잘 걸구고 다음해 봄에 아 카시아나무와 뽀뿌라나무모를 많 이 키워내자고 하였다. 이때 산 립경영소일군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깔나무종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수림화, 원림화실현에서 나무 종자문제를 중시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깔나무종자를 맡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림경영소일군들 과 로동자들이 떨쳐나섰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 험한 벼랑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하지

마음 만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산으로 올랐다.

군안의 로동자, 사무원들도 떨쳐나섰다.해종일 가파로운 산발을 오르내리면서 종자를 채 취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 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앉지 않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

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마르틴 뢰체르 스위스조선위원

회 위원장과 일행이 13일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를 방문

조일민대표와 지부성원들이 손

담화에서는 최근 자기 조직들

님들을 맞이하고 담화를 하였다.

하였다.

았다. 그들은 나무종자를 뗘나 서는 고향산천을 수림화,원림 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산으로 올랐다.

이처럼 종자마다에는 수종이 좋 은 나무모를 더 많이 키워내여 고 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 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이곳 일 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열렬 한 향토애가 뜨겁게 슴배여있다.

본사기자

지 와 일 성 동 동상을 김정일동지의

박 따 뿌 르 시 친 선 대 표 단 모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 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

정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

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일 네팔 박따뿌르시친선대표단 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일행을 만났다

총리 박봉주동지는 1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부상, 박명철 체신성 부상과 에 리사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젤딘 헤이칼 주조 에짚트 오라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103(2014)년 10월 1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힘있게 벌려 모든 기대와 설비들을 알뜰히 판리 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현대화 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_ 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단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락원식료공장 2직장

락원식료공장 3직장

26호모범기대영예상

직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출하

락원백화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

명 봉 골 특 전 권 대 사

여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 하여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13일 연회

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초대되

몽골대사판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마니바드라힌 간볼드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 였다. 그는 당창건 69돐에 즈음

하여 조선로동당과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

몽골의 전세대 지도자들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오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하

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

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계시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 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강석주동지가 연설

하였다. 그는 몽골인민이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을 함께 경축하는것은 두 나라 당들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

다고 말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었다.

대통령각하의 깊은 관심속에 계 속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9월에 있은 조선로 동당대표단의 몽골방문은 두 나라 당들과 인민들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두터이 해나가는데 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

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 쥐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 여, 조선과 몽골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 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

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통보하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천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탄광 자재과

대표는 올해 스위스조선위원 회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책동과 반공 화국도발행위를 반대규탄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사수,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 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 성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고려민주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4돐과 력사적인 10. 4선언 발표 7돐이 되는 올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화같 은 흠모심이 경향각지에서 날을 따라 더욱 분출되고있는데 대하

위원장은 조선의 통일은 외세 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반공 화국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과 도발행위를 걷어

여 그는 언급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일행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 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지난 10일에 또다시 감 행한 삐라살포망동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인내성있 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삐라살포를 비롯한 온갖 반공화 국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당 장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원장은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공화국의 모든 조치와 활동들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 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스위스조선 위원회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 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현대성을 보낸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길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에 가는 철도성대표단 출발 로씨야의 쏘치에서 진행되는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원필종 철도성 참모장과 알렉싼드르 찌 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

철도성대표단이 13일 평양을 대사가 전송하였다.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대표단 도착

류드밀라 딸라바예바 지역 하였다. 정치리사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런방대사관 공사참 부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 사가 맞이하였다.

네팔 박따뿌르시친선대표단 도착 람 마니 바따라이 행정관 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

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박 였다. 따뿌르시친선대표단이 13 【조선중앙통신】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지 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 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 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 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 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 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

6. 1 5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은 북 남관계개선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해주 고있는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이다.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에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 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 져있다. 6. 1 5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천명하였다. 6. 1 5 공동선언에 의해 민 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절대적진 리이며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인 우 리 민족끼리가 제시되였다. 우리민족끼 리리념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더우기 6.15공 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 과 남측의 현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 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 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평화적통일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평양에서 민족 의 총의를 반영하여 채택된 10.4선 언도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도약대, 자주통일 과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10.4선언 은 6.15광동선언의 요구에 맞게 북 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 들을 폭넓게 담고있다.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 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적대판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 하는 문제,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 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 사회문화분야 등 여러 분야 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10.4선언에 명시된 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북남관계의 다방면적인 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이다.

6. 1 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 다. 6. 1 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판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자 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과 거의 북남합의들을 총집대성한것으로 하 여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최고지침으로 서의 절대적지위를 가진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사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 는데서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 수 없다. 6. 1 5공동선언의 발표후 지나 온 10여년간은 북남선언들이 사상과 리 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유일무이한 민족공동의 통 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 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적인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의 리행은 북남관계발전의 출발점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 통일과 번 영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6.15광 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만이 북남 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놓 을수 있다. 6. 1 5 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대 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남대화 는 소모적인 론쟁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 의있는 대화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각 방면에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 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여갔 다.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교류 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마 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해내외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사 이의 련대련합이 강화되였다.

현시기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을 존중 하고 리행하는것이다. 6. 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은 북과 남의 리익을 다 같이 반영하고있으며 민족공동의 의사 와 요구를 담고있다. 선언들에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문제를 원만 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가 다 들어있다. 북남선언들의 리행이 북남관계발전에서 얼마나 사활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나서 는가 하는것은 지나온 나날을 통해 실증 되고도 남음이 있다. 북남선언들이 성실 히 리행되면 관계개선의 흐름을 타고 흩 어진 가족, 친척상봉뿐아니라 평화보장 과 협력사업 등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 구와 지향에 맞게 보다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6. 1 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

나갈 때 북남관계가 신뢰와 단합. 통임을 지향하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될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6. 1 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문제해결 의 열쇠이다.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은 반 드시 존중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 다.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에 대한 태도는 북남판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 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한 6. 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신뢰를 쌓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당연 하다. 북남관계개선도, 신뢰의 조성도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의 리행 에 있다. 지나온 북남관계사는 북과 남 이 공동선언에 충실할 때 서로 힘을 합 쳐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지만 그것 을 거역하고 유린하면 걷잡을수 없는 대 결과 파국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대결의 악순환을 지 속하느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 가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 어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번영 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북남선언 들이 있으면서도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 를 찍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변함없는 리 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 며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긴 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 고 리행하는것으로 실천적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심 철 영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미본부

선 언

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련

합 재미본부가 4일 선언문을 발 표하였다.

선언문은 민족분렬의 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어놓은

10. 4선언발표 7돐기념 청년 통일토론회가 6일 일본 도쬬에 서 진행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 조선류학생동맹 등의 일군들과 관계자들, 재일동포청년학생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과 토론자들은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 위하여 청년들이 단결된 힘으로

발 표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 6.15공동선언에 이어 채택된 10. 4선언은 민족의 가슴마다

에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 었다고 지적하였다.

더라면 우리 민족은 통일의 기

북남공동선언들이 리행되였

쁨을 누릴수 있었을것이라고 밝 혔다. 민족의 통일성취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 될 때만이 가능한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리행하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 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선언문 은 강조하였다.

년 통 호 진 행

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력대 그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

도 죠 에 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 길에 조국통일이 있다고 언명하 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 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과감히 뗠 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청년 들이 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 가자고 호소하였다.

로 므 니 아 정 계 인 사 화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 의 민족적숙원이다. 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제시 34돐에 즈음하여 로므 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 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조선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 근 70년이 되여오지만 조선 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 과 김정일총비서의 한생의 념원 이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

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이

다. 그것이 북남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실례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북남관계가 다시는 파국에 처하

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전에도 남조

선당국에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망동을 당장 중지시킬것을

란을 저지시키기는커녕 그 무슨

그러나 괴뢰들은 삐라살포광

강력히 요구하였다.

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올해는 조선의 북남사이에

김일성주석께서는 34년전 가

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인 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된지 7돐이 되는 해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 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것을 천 명한 6.15공동선언의 근본원 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북남관계

어느 통치배들보다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기승을 부

리고있다. 《국회》에서 《북인

권법》이라는것을 기어이 통과

시키려고 발팡하고있는 사실,

《북인권기록전시관》이라는것

을 만들어놓고 허황한 날조자료

들을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적

대기운을 극구 고취하고있는 사

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최

근에는 미국의 반공화국 《인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 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10. 4선언발표는 조선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 겨준 력사적사변이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 사회는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사 이에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서 통일문 제를 해결해나갈것을 강력히 요 구한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강 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 원한다.

놓기 위한 정치적도발에 끊임없

이 매달리는것은 북남사이의 불

신과 체제대결을 격화시켜 종당

에는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

다.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대화를

의 후과는 이처럼 엄중하다.

【조선중앙통신】

머니 의 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 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 고 각급 조직과 단체들을 더 욱 강화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차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맹렬 새 세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 려 총련을 전통이 굳건하고 군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애국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산 하조직들에서 대오를 강화하고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기 위

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녀성동맹 군마현본부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민족교육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 성과여부에 따라 애국운동의 승 패가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발전시키 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그들은 학교사랑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과 함께 교육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 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본 부에서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 차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 든 조선학교들과 각지 녀성동맹 조직들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 였다. 불과 석달사이에 일본 각 지는 물론 북과 남, 해외에서 무 려 4 만여건의 지지서명이 들어 왔으며 그 과정에 상당한 액수 의 자금도 마련되였다. 동포녀 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 의에 참가한 어머니대표들은 일 본당국의 천만부당한 민족교육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유엔산하의 한 심 의위원회는 일본정부에 조선학 교차별정책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군마현본부에서는 이룩된 성 과들과 경험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학교어머니회, 학교와의 긴밀한 런계밑에 민족교육의 토 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각계층 동포들과 마음과 힘을 합쳐 선대들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끝까 지 지켜나가겠다는것이 이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한편 녀성동맹 아이찌현본부 는 각오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동 포 청 년 들 이

차대회가 진행된 이후 각지 조 청조직들이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신 진로를 따라 재일조선 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청춘 의 열기로 열어나갈데 대한 대 회의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받 아안은 각지 조청조직들에서는 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을 믿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업에 힘을 넣어 군중핵심육성사 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 다. 본부에서는 지난 기간 산하 단위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총화 하는 과정에 일군이 된다고 하 여 저절로 핵심성원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안고 동포사회를 떠메고나 갈 새 세대 동포녀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리였다.

본부에서는 지난 기간 사업에 서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고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결정적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 세대 동포녀성들로 《조국사 랑, 동포사랑, 후대사랑에 대하 여》와 《번영하는 조국과 동포 들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여 러차례의 토론회를 조직하였 다. 토론회는 동포사회를 더욱 활성화하자면 새 세대 녀성들이

에서는 새 세대 녀성들과의 사 계기로 되였다. 앞 장 선 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23 대오로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이와 함께 애국애족운동을 새 세대를 중심으로 전환할데 대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동포청년학 생들을 더 많이 묶어세우고 민 족의 정서가 넘쳐나게 하기 위 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조직들에서는 다음해에

맞이하게 되는 총련과 조청결성

6 0 돐을 계기로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 려 조청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 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총련 조선대학

교 조청위원회가 앞장서고있

다. 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심장으로 받들고 총련 제 2 3 차 전체대회결정을 철저 히 집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운동 에서 조청원들이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 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졸업생 들을 빠짐없이 조청조직의 두리 에 묶어세우고 일본학교에서 공 부하거나 졸업한 동포청년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조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또한 조청원들이 선대들이 지니였던 애국의 정신 을 계승하도록 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동포청년 그 담당자. 기둥이 되여야 한다 들의 지향을 꽃피워주는 참다 운 청년단체로, 힘있고 약동하 며 매력있는 청춘의 활무대로 꾸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 쳐가고있다. 애국위업의 고수를 위해,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긍지와 보람안고

모든 조청일군들이 뛰고 또 뛰 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한 앞 날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미더운 조청일군들에 의해 총련의 애국 위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향해

라 영 국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것은 내외의 커다 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 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북남 관계가 파국의 수렁에서 벗어나 _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조 국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인간 쓰레기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

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 라살포놀음을 강행하였다. 이것 이 개선의 /***********************

첫걸음을 🕻 《인권》모략, 체제대결광증의 뗴기 시작 ₹ 한 북남관 🕻

금 극도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거가 없다. 》 느니 뭐니 하는 황 사태는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으 로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해치 는 삐라살포망동이 북남관계에 얼마나 큰 장애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 었다.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 동은 그들주도의 자발적인 행동 이 결코 아니다.

변변한 직업이나 생존수단도 없어 남조선당국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으로 구차스러운 목숨을 겨우 부지해가고있는 추물들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는 망동에 스스 로 나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 는다. 남조선당국의 묵인과 방조 가 없이 인간쓰레기들이 어떻게 삼엄한 경계속에 있는 군사분계 선일대에 뻐젓이 나타나 삐라살 포놀음을 강행할수 있겠는가.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은 사

《자률적판단》이니, 《법적근 골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면서 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 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 은 남조선당국에 인간쓰레기들 의 삐라살포소동을 중지시킬 꼬 물만 한 의사도 없다는것을 립

증해주었다. 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공 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살포소동이 저들이 외세와 작당하여 끈덕지게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중요한 한 고리이기때문이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 식, 병적거부감에 물젖어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인권》 모략소동은 반공화국 대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인권》문제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느니,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라느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 에 끌어들이기 위한 놀음을 본 격적으로 벌리고있다.

로 살기를 그만둔지 오랜 인간 쓰레기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이 하다면 괴뢰패당이 삐라살포 추물들을 삐라살포놀음에로 적 행위를 왜 중지시키지 않고있는 국 부추기고있는것이다. 혀싴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코 에 걸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고립 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괴뢰패 당의 범죄적책동이 그야말로 최 절정에 이르렀다는것을 톡톡히

> 삐라살포소동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흔들고 일심단결을 해침으로써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망상을 이루어보 려는것이 반공화국《인권》모 략광신자들의 술책이다.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터무니없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0

하고 관계를 풀자고 하면서 인 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상대방을 중상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계속 벌린다면 북남관계가 어떻 권》모략의 하수인으로서의 몰 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

* 조선당국은 발로 야망에 사

위기를 흐려놓고있다. 우리는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 과 체제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사람으 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

도 모른다. 우리가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란동을 계속 허용하거 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수습 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 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 거와 결별하고 관계개선에 발벗 고나서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유 혹하고 기만하는 놀음으로 시간 이나 질질 끌겠는가 하는 저들 의 속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독자의_펠지...

회 주 의 보 건 제 도 가

우 리 의 저는 고마운 보건일군들에 대 한 이야기를 하고싶어 펜을 들

었습니다. 몇달전 제가 호흡기질병에 걸 린 어린 딸을 업고 김일성종합 다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학 강좌의 입원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좌에서는 말그대로 모든 의료 일군들이 펼쳐나섰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동무 들이 아이를 받아안고 검사실들 로 뛰여다니더니 어느새 수술장 은 보약들과 간식들이 놓여있는

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너무도 잠간사이에 벌어진 일이여서 어안이 벙벙해있는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

던 강좌장 리광성, 과장 오성

환, 의사 최창현선생님을 비롯 한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지금 도 생생합니다. 수술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며 칠이 지난 어느날 저는 또 한번

놀라게 되였습니다. 딸애의 침대머리맡에 내의류 들과 세면도구, 건강회복에 좋 것이였습니다. 그것이 의료일군 들과 간호원들이 마련한것임을 알았을 때 저는 드디여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진정 우리 딸애는 고마운 우 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 택속에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났 습니다.

저는 이 귀중한 제도를 쌀로 써 더욱 빛내여나가는데 자신의 힘과 정열을 깡그리 바쳐나가겠

> 룡강군 립송리 7인민반 정 영 희

인생길은 선택의 련 속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리익과 사회 와 집단의 리익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결정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 는 자기에게 차례진 향유의 권 리보다 조국앞에 지닌 헌신의 의무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청춘

따라 삶의 가치와 생의 보람이

을 빛내이고 사회와 집단에 미 덕의 향기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박천군 상양협동농장 농장원 계광월동무도 그들중의 한 사람

이다. 대 한 령 도 자 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 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계광월동무가 박천군 송석리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 인 박성호동무에게 청혼하였다 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을사 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계광월동무의 사람됨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는 마음씨 곱고 일솜씨 또한 살뜰하여 농장의 사 랑을 받는 처녀였으며 명절날이 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 그들을 고무해주군 하 던 청년동맹초급일군이였다.

더구나 그의 오빠 계광일동무 가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 을 바친 특류영예군인이라는 사 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성호동 무를 한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처녀의 진정을 충분히 헤아릴수

선 박천군 상양협동농장 농장원

있게 하였던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계 광일동무가 온 마을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할 때 계광월동무의 눈에는 자기의 형님이 될 김문 영동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 름다운 녀성으로 안겨왔으며 눈

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맙고 따 사로운 사랑이 있다는것을 나어

린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다. 김문영동무의 소행을 기특히 여기시여 은정어린 감사와 선물 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영 예군인들의 안해들도 불러주시 였을 때,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과 사랑의 선물들을 보는 순간 계광월동무 가 받아안은 충격은 얼마나 컸

던가. 그는 영예군인들을 금싸래기 처럼 아끼며 친어버이정을 부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그 품속에 오빠와 온 가정이 안 겨산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

그의 마음속에는 김문영동무의 모습이 거울처럼 간직되였다. 흐르는 세월속에 어느덧 처녀

에게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

택의 시기가 찾아왔다. 시집갈 나이가 된 그에게로 혼 사말이 걸려오기 시작했고 부모 들은 처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깊은 생각끝에 계광월동무는 상양리청년동맹위원장 김성남

동무를 찾아갔다.

《위원장동지, 저에게 특류영 예군인을 한명 소개해주십시 오. 전 꼭 특류영예군인과만 결 혼하겠습니다.》

《그게 진정이요?》 《예, 저도 우리 형님처럼 살 고싶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오던 나

날에 그를 잘 알게 된 김성남동 무는 계광월동무를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그 과정에 송석리에 살고있는

박성호동무를 알게 되였으며 계 광월동무와 함께 수십리길을 찾 아가 그를 만나보았다. 비록 두눈을 잃고 앞을 못 보

지만 농장일에 조금이라도 도움

을 주려고 손바닥에 물집이 지

도록 새끼줄을 엮던 박성호동무

의 모습은 처녀의 마음을 뜨겁 게 하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처녀 는 부모들에게 박성호동무와 일 생을 함께 할 결심을 터놓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

고 어머니가 나직한 어조로 딸 에게 물었다. 《네 마음은 알만 하다. 네 오 빠를 봐서라도 영예군인들을 남 처럼 대할수 없는게 우리 집이 지. 하지만 네가 택한 길이 각오 한것보다 더 험할수 있다는걸

처녀는 눈물맺힌 눈으로 어머 니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어머니, 오늘 성호동지와 위원장동지가 마주앉아 이야 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웠는

생각해봤니?》

계광월동부

삶

데 제가 그만 무의식중에 재털 이를 성호동지가까이로 옮겨 놨어요.》 그찰나 앞을 볼수 없었던 박

성호동무는 그만 김성남동무의

손등에 담배재를 털었다. 순간 당황해하는 박성호동무 를 보면서 처녀는 솟구치는 격

정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때 참았던 격정을 터치듯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들에 게 절절히 말하였다.

《어머니, 그 집도 우리 집도 다 특류영예군인의 가정이예 요. 제가 누리고있는 행복이 얼 마나 귀중한 사람들의 피어린 희생의 대가로 지켜지고있는가 를 난 오늘 똑똑히 깨달았어요.

절 믿어주세요!》 딸은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광월아!》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딸 의 어깨를 쓰다듬을 때 과묵한

고였다. 다음날부터 처녀의 걸음은 송 석리로 쉬임없이 오고갔다. 자 기의 진정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박성호동무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돌려세우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으 며 불같은 진정은 박성호동무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계광월동무는 또다시 송석리로 찾아갔다. 이제는 제 집처럼 정든 집이

여서 그는 총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방안도 정돈하고 부엌에 내려

가 동자질도 하였다. 박성호동무는 자기 의 귀전에 들려오는 처녀의 발자욱소리며 자기 어머 니와 다정히 나누는 말소리를

들으면서 계광월동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왜서인지 그의 상상속에는 예 술영화 《내 고향의 처녀들》의

화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날이 저물무렵 계광월동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당 에 따라나온 박성호동무는 투박

스레 말하였다. 《우리 집안의 물건들은 다 내 기억속에 그 위치가 고정되 여있소. 그러니 다음부터는 집 안정돈을 할 때 방안의 물건들 을 마음대로 옮겨놓지 마오.》

《예?!》 《앞으로…나와 함께… 있자 면 이걸 명심해야 하오.》 그때 처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는것을 박성호동무 는 심장으로 느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계광월동무의 소행을 온 나

라 인민이 다 알도록 높이 내세 워주시였다. 박성호동무와 계광 월동무의 결혼식이 머지 않아 박천군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 에 진행되게 된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한송이

국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계광 월동무.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인생

꽃으로 피여나 사회주의 내 조

의 참다운 선택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될것이다. 승 철 진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의 불공평한 핵정책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있다. 중국의 홍콩 봉 황위성TV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보도 기관들이 그렇게 보도하고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첫째로는 핵문 제에서 미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고 둘째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매우 공 정치 못하다는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묵인하 고 반대로 조선의 핵보유와 이란의 핵 개발은 문제시하면서 제재를 가하고있 다.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내 용을 무시하고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을 비법으로 묘 사하고있으며 핵위협을 가하여 그 나 라들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시도하 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개의 대국들에만 기 술적 및 경제적리득을 제공하게끔 제 도를 세워놓고있다.미국의 이중기준 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불평등은 결 국 일부 주권국가들의 반발과 핵무기 전파방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하는 근본 요인으로 되고있다. …

이것이 바로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주장 이다. 옳은 평가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핵정책은 핵무기를 기본수단으 로 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해 담 보되는 지배주의정책,세계제패정책이 다. 따라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붕괴 되면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지 고있다고 해도 핵우세는 끝장나고만다.

핵무기가 대량살륙무기들중에서도 가 장 위력한 무기라는것은 문명인치고 모 르는 사람이 없다.

제 2 차 세계대전말기에 미국은 일본 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탄을 투

하하여 그 지역들을 재더미로 만드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세계는 핵무 기가 어느 정도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가지고있는가를 톡톡히 알게 되였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핵무기는 날로 소형화되는 반면에 위 력은 과거의것보다 더 높아지고있다. 1961년에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B-52》전략폭격기에 탑재했 던 수소탄이 땅우에 떨어져 폭발직전의 상태에 놓였던적이 있었다. 이 수소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였던 원자탄의 260 배나 되는 위력을 가지고있었으며 폭발 하였더라면 수도 워싱톤과 필라델피아, 뉴욕 등 미국의 넓은 지역을 죽음의 재

속에 몰아넣을수 있는것이였다고 한다. 본토와 세계 여러 지역들에 이보다 더 위력이 큰 핵무기들을 보관하고있는 미 국은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본격적으로

달라불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낡은 핵무기와 핵관 런시설들의 개조를 추진하는 문제를 놓 고 토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30년동안 핵무기현대화에 1조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에 1950년대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을 핵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생산에 할 당하였다. 앞으로 10년간 핵탄두를 현 대화하는데 3 550억US\$를 탕진하려 하는것이 미국의 야심적인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 설하기 위한 일인가. 핵무기에 의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망상이 미국을 위험

한 구렁텅이로 끌고가고있다. 국제사회는 오바마정권이 몇해전에 《핵 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고 마치도 미 국의 핵정책이 변한것처럼 요사를 부린것 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바마정권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눅거리광고에 불과 한것이라는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위

협공갈하고 유린말살하는데 필요한 만능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의 핵정책에 비낀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기만적이고 불공평한 핵정책,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끊임없이 감행하 는 핵공갈은 그 피해국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의거하고있는 핵우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없애버리는데로 지향하게 하고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 어날수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 다. 2 1세기에 들어와 핵보복의 위험 을 더 많이 느끼고있는것은 미국이 잘 못 작성하고 잘못 실시해온 핵정책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한사코 유지해보려는것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핵불안증, 핵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로 되고있다.

현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미국 등의 핵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 하려고 만들어낸것이다. 조약에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시험, 생산, 배비 등 핵활동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는 규정되여있지 않다. 이와 함께 그것은 핵 무기개발, 그 전파와 관련한 사찰에서 핵 보유국들은 철저히 면제해주고 비핵국가 들에만 올가미를 걸어놓은 국제적인 조약

들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물론 조약의 제 1 조는 핵보유국들의 전파방지의무를 쪼아박았다. 그러나 사

찰은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기성의 핵보유국들에 베푸는 조약의 《관대성》을 리용하여 미국은 차별적인 이 중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하 였을뿐아니라 음으로양으로 도와주었다. 조약의 제4조는 조약에 가입한 나라

들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그에 따라 비핵국가들도 평화적핵활동권 리를 가지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 해서는 그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가 비핵국가로 있을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이였다. 지금은 이란이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 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핵보유국이 되 였다. 자위의 원칙에서 우리는 부득불 그 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은 여러 핵보 유국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핵무기현대화 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 결국 세계 의 비핵화를 바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할 날은 앞당겨지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멀 어지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핵전파, 핵군비경쟁 의 장본인이다. 핵무기전파방지제도를 붕괴시키고있는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자 신에게 있다.

까자흐스딴대통령 나자르바예브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공정치 못하다》 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세계의 안전 보장체계는 핵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인류공동의 목적에 기초하 여 수립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 되자면 핵위협공갈의 주 범인 미국부터가 핵무기현대화를 당장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를 페기하여야 한 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핵무기가 없는 세 계를 창조할수 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무력은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될것이다. 리 경 수

국경지역들에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

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국경 과 가까운 농촌지역들에 특별한

햇하고있으며 이곳 인민들은 전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비난

드 아빠스가 8일 성명을 발표하 여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지난 시기 형식상 《유엔군》의 기발을 들었지만 사실상 유엔과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이 없는 남조선주둔 미군도 조선통일의 미국이 지역에서 벌리는 모든 군사활동과 마찬가지로 남조선

를 당장 철회할것을 이스라엘당

◇ 미국의 캘리포 04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 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으로 8일현재 사망자 나 라 에

일 리히터척도로 6. 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엘 도라도로 부터 서남쪽으로 121km 떨어진 바다수역에 있었다 한다.

◇ 뉴질랜드 노스섬의 플렌티

◇ 꼴롬비아의 북부지역에서 6일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 생하였다. 벼락으로 11명이 목숨 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뜨

나 라 에 서 경 축 행 사 진 행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

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 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 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

건 69돐에 즈음하여 로

씨야, 영국, 몽골에서 토

론회, 사진 및 도서전시

회,영화감상회가 5일

행 사 장 들 에 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과 선군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

들이 모셔져있었다. 또

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사

진,도서들이 전시되여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

있었다.

영되였다.

이 참가하였다.

위원회 제1비서는 우리 당의 창

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다음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

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

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서의 위

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운반로케트 발사

《쁘로똔-M》을 쏴올렸다.

한다.

있다.

대해 밝혔다.

로씨야에서 최근 운반로케트

바이꼬누르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반로케트에는 중계

위성 《루츠》와 가속블로크 《브

리즈-M》이 탑재되여있었다

로씨야련방 우주총국이 이에

경제장성목표

안에 경제장성률을 7%이상

끌어올릴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국내총생산장성 전망

회계년도에 국내총생산장성률

이 6%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

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인디아에서 4월에 시작된 현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3년

같이 토론하였다.

로씨야런방공산당 연해변강

과 6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지금으로부터 69년전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 여 굳게 단결된 강위력한 당, 세 계 혁명적당들의 귀감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 였으며 김정일동지를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다.

몽골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 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영화를 감상하고 전후 페허로 되였던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일뗘세운 조선인민의 영웅적투 쟁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투쟁 한 결과이다고 말하였다.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 하여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에 서는 《조선로동당과 강성국가건 설》이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라 비뜨라 바흐뗴라 쁘라따마회사 에서는 토론회가, 클룹디엔겔회 사와 아시아 아그로 아궁 자야 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 간에 진행되였다.

특별농업지대창설계획

스리랑카정부가 7일 첫 특별

나라의 동부주에 창설될 농업

거기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가

공공장들과 도로, 관개시설을

비롯한 하부구조들이 건설되게

문화예술발전을

케니아정부가 나라의 문화예

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기금

기금설립은 나라의 문화예술

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특

히는 민족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영화 및 음악작품들을 장

려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 치

위 한

을 설립하였다.

지대의 부지면적은 3 000ac(에

이커)에 달할것이라 한다.

농업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계획

을 발표하였다.

된다.

~~』사회적진보와 발견을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 상탑》, 《당창건기념탑》을 비롯 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 였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대외 관계과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조선로동당이 강철의 당,불 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당창건업적, 김정일각하의 당령도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조선로동당은 뛰여난 정치적식견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김정은제1비서를 중심으로 전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다.

라비뜨라 바흐뗴라 쁘라따마 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 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를 쳐부 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후 1945년 10월 10일 근로인민 대중의 참다운 정치조직인 조선 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정은원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당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클룹디엔겔회사 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들을 보고 당을 상징 하는 대기념비가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인 민이 조선로동당을 끝없이 신뢰 하고 그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당과 운명 을 같이하려는 그들의 신념의 과시이기도 하다, 김정은각하의 관심속에 조선에서는 수많은 기 념비적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뗘 서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위 하여

협

각서에 조인하였다.

로 합의하였다.

이룩되였다.

다고 한다.

아르메니야와 까자흐스딴이

8일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

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앞서 6일 나미비

아와 쓰르비아는 농업수리건설

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량해

한편 남아프리카,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10일 기후변화

방지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합의는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합의에 따라 회의참가국들은

2015년에 기후변화방지에 관

한 국제적협정을 채택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이 분야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하게 된

다양한 참관로정을 갖춘

미래의 자연동물원

【조선중앙통신】

된 이 나라들의 상급회의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통일의 주요장애물

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조선은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통일이 필수불가결하다

런방제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

향과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

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위업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계승되였

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고

6. 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

였다. 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

공동선언에는 통일을 위한 원

칙들이 명시되여있는데 그중 가

장 중요한것은 통일문제를 외세

의 간섭이 없이 민족이 힘을 합

쳐 해결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

를 받았다.

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 《뜨리부나》 8일부가 글을

신 문 은 10월 10일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의 평화통 일로선을 제시하신지 34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게재하였다.

조선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 리는 하나의 성구로 된 부름이 있다. 조선은 하나다. 북과 남의 조선인민은 이 부름을 같은 심 정으로 받아들이고있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안의 내용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

-미국 미주 리주의 쓴트 루 이스시에서 9일 경찰의 살인만행 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8일 백인경찰이 18살 난 흑 인청년에게 총사격을 가하여 무 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 난 시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참

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지난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불신과 대

립이 커가고있다.

얼마전 영국에서 진 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 서 성원국들은 로씨야 의 《위협》에 대해 운운 하면서 나토안에 고도 의 준비태세를 갖춘 신 속대응무력을 창설하기

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존 나 토무력이 사태발생이후 그 대응에 이르기까지 5일이상 걸린다면 새로 내오는 신속대응무력은 지구상 임의의 지역에 2~5일안으로 전개하여 작전을 개시할수 있다

0 고 한다. 나토사무총장은 신속 대응무력에는 공군과 해 군, 특수무력의 지원하 에 며칠내로 전개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수 천명규모의 지상무력이 포함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나토가 적절 한 지휘통제기구들을 내 오고 장비와 물자들을

사전배치하며 신속전개 연습들을 진행할것을 계 획하고있다고 밝혔다. 도이췰란드의 한 신 문은 나토가 라뜨비야, 리뜨바. 에스또니야와

기타 동유럽나라들에 5 개의 군사기지를 배비 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매 기지에는 수백명의 군인들이 장기적으로 주둔할것

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나토는 로씨야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화약내풍기는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놓

그후 남조선당국은 이 원칙들을 줴버렸다. 여기에 런방제에 기

<u>0</u> ٨I

8월 주의 퍼구슨시에서 백인경 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발생 한데 이어 이번에 그와 같은 살 인만행이 또다시 감행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이딸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10일 당국의 9월초 나토는 체스꼬에서 대 규모항공연습을 벌려놓았으며 15일에는 《래피드 트라이든트

2014》로 명명된 미국주도의 군 사훈련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 되여 가뜩이나 복잡한 이 나라 의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 다. 얼마전에는 나토성원국들의 해군함선들이 흑해에 들어가 합 동연습을 벌려놓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나토의 움직 임은 로씨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나토의 목적 은 군사력을 확장하여 로씨야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나라가 더이상 국제정세에 영향 력을 행사할수 없게 하자는데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러한 나토의 행위는 로씨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 찐은 한 회의에서 로씨야국경부

근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창설, 우주군사화의 추진, 나토의 동유 럽주둔무력확대 등 나라의 군사 적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응 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서 정부는 국가의 안전이 확고 히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부수상 드미뜨리 로고 진은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사태 는 미국에 매우 리로운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이 나토의 존재필요성을 립증하는 한편 저 들의 경제적경쟁자인 유럽동맹 을 약화시킬수 있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우크라이나사태를 코에 건 미 국과 서방의 대로씨야압력소동 이 강화되는데 대처하여 로씨야 정부가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취 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수공업위원회가

착시키고 인위적인 대결을 사촉 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포기하지 않 으려 하고있다.

주둔 미군은 조선의 분렬을 고

초한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영향이 없지 않았

을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전진시키시려는

김정은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의 노력들은 《흡수통일》만

을 고집하는 남조선과 미국의

조선은 《흡수통일》을 절대로

반대에 부딪치군 하였다.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주요장애물이다.

부당한 교육정 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 졌다.

시위들에는 약 8만명의 군중 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 을 따라 행진하면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그릇된 교육정책을 규탄하였다.

창설되였으며 나라의 군사안보

정책수정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 수정되는 군사안보정책에 미국과 나토가 적으로 명백히 규정될것으로 보 고있다. 한편 로씨야는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강

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라의 동부지역에서 최근 15만 5 000여명의 군인들과 약 8 000대의 전투기술기재와 장비, 632대의 비행기와 직승 기, 84척의 함선이 참가한 전략 지휘참모훈련 《워스또크-2014》가 진행되였으며 9월 18 일에는 동부군판구소속 전략폭 격기와 추격기들이 미국의 알라

스카해안부근의 중립수역상공 에 대한 순찰비행을 하였다. 또한 항공우주방어군이 핵공 격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훈련 을 진행하였다.

훈련과정에 항공우주방어군 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무기체계 들의 전투력을 회복하며 강력한 방해전파가 조성되고 파괴암해 분자들이 책동하는 조건에서 조 기경보체계를 중단없이 가동시 키기 위한 작전이 련마되였다.

이밖에도 2018년까지 로씨 야는 《워로네쥬》형 전파탐지소 를 전개하여 로씨야령토에 미싸 일타격위협을 줄수 있는 모든 방면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실현 하려 하고있다.

에 우주대상식별을 위한 종합체 들이 전개되며 우주공간통제체 계완비를 위한 10여개의 종합 체들이 건설된다고 한다. 외신들은 로씨야와 나토사이 의 군사적대립이 지난 세기에

있은 동서간의 랭전을 방불케

또한 알따이변강과 연해변강

한다고 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6 투원들이자 국경경비대원들이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 지역들은 외부로부터 의 침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 라고 말하였다. 국경지역 마을들의 역할이 중요한것만큼 정부가 이 지역 들의 개발사업에 보다 큰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 하였다.

一요르단 공보체신담당 국무

상이 8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행위를 단죄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동부꾸

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팔레스티나 이슬람교도들

의 출입을 가로막은것과 관련하

여 그는 그것을 불법무도한 도

그는 이것이 지역의 긴장상태

를 격화시키고 극단주의적인 충

돌을 가져올뿐이라고 하면서 국

제공동체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여 그러한 행위를 당장 종

발행위로 락인하였다.

식시킬것을 호소하였다.

하였다.

-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전세계 이슬 람교도들의 성지로 간주되고있 는 동부꾸드스의 알 아크사사원 에 유태인정착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은 그것이 중동지역에서 종교적 인 분쟁을 야기시킬것이라고 단 죄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이

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 고 하면서 성명은 그러한 조치

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니아주에서 최근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이 벌어졌다.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따께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얼마전 미국

러 역을 뒤덮어 생태환경이 심히

오염되였다. ◇ 메히꼬의 서부지역에서 8

만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5.1 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무루 파라로부터 서쪽으로 약 25km 되는 곳에 있었다.

자 연 서 라주에서 5일 씨나붕화산이 분 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吅 해

재가 3 000m 높이 이날 화산이 4차례 폭발하였다



까지 뿜어져올랐다.

단마르크에서 지구상의 동물 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경할수 있는 미래의 동물원을 건설할것 을 계획하고있다. 동물원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휴식할수 있는 큰 원형공간이 있 으며 그것을 둘러싼 3개 구획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구획 은 지하굴과 다리들로 련결되게 된다. 동물원은 매개 구획에서 뽀

트, 자전거, 삭도를 리용하여 참 판할수 있도록 설계되였다. 참판자들은 코끼리와 기린, 곰을 비롯한 각종 동물들을 자 연서식조건에서 구경할수 있다

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확대해 나가고있

다.얼마전 《야

뻬 루 에 서 지 진 피 해 첨예화되는 갈등과 로미사이의

대통령 오바마 가 유엔총회마 당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 하는 요인들에 대해 제나름의 주장을 폈다. 그에 의하면 첫번 째는 에볼라비루스, 두번째는 유럽에서의 《로씨야의 침략》, 세번째는 이슬람교국가를 비롯

한 테로단체들이다. 유엔총회연단에서 자국을 침 략자로 몰아붙인 미집권자의 발언에 로씨야가 강하게 반발 해나선것은 두말할것 없다.로 씨야외무상은 자국을 에볼라 비루스나 이슬람교국가와 함 께 세계적인 위협대상으로 놓 은것은 국제공동체의 견해를 반영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랭 전식사고방식의 발로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시기 로미관계가 적대적인 것으로 변하고 쌍방사이의 갈 등이 극도에 달하고있는데 대 해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있 다. 세계 많은 보도계와 전문가 들이 로미관계를 두고 《제 2의 랭전에로의 진입》이라고 평하 고있다.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 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정권 의 현 대로씨야정책은 미국이 이미 로씨야에 랭전을 공식 선 포하였다는것을 느껴지게 한다

실지로 미국의 대로씨야정책

고 말하였다.

은 대결이다. 우크라이나사태가 주되는 계기점이라고 볼수 있 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로씨 야와 유럽동맹사이의 힘겨루기 에 중뿔나게 뛰여든 미국은 우 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을 무턱대 고 로씨야에 넘겨씌우며 대대적 인 여론전을 펴고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을 추동하여 로씨야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시행하고있다. 미정객들의 입에 서는 로씨야의 《위협》타령이 그 칠줄 모르고 나오고있다.

운운하며 유럽지역에 대결분위 기를 고취하는 미국의 처사가 저들의 불순한 속심을 가리우 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데 대 해서는 객관적사실이 립증해주 고있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인터네트 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하지만 로씨야의 《위협》을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이 나라를 유럽동맹에 끌어들이려 하고있 는것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견 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계 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최근에 다른 나라들을 미국 식으로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

국이 〈포드기금〉을 비롯한 사영

기금들을 리용하여 파괴활동을

벌린다는 사실이 폭로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를 배후조종 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 다. 미국의 궁극적목적은 강국 건설을 지향해나선 로씨야를 제 압하여 미국이 판을 치는 유럽,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세우자 는것이다. 랭전의 유물인 나토 를 아직까지 미국이 걷어안고 그 확대에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나토는 동유럽나라들은 물론

이전 쏘련지역에 있던 나라들

까지 끌어들이면서 기구를 로

씨야국경가까이에로 확대하였

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나토

에 가입시켜 이 나라를 반로씨 야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 꾀하 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여 로미판 계를 악화시켰을것이라고 하면 서 오늘날 두 나라의 마찰이 완

전히 피할수 없는것이라고 확언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로씨야를 적으로 보는 나토의 태도, 미국 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있다. 하는 체계가 달라졌다. 중앙정보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로씨야를 고립압살하려는 미국 의 책동이 로골화될수록 로씨야 《쎄베로드빈스크》호가 백해수역 의 대응도 보다 강해지고있다.

로씨야의 외교활동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순 회방문은 그 단적실례이다. 이 과정에 로씨야와 꾸바사이에 정보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조 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조인되 였다. 로씨야는 지정학적의의가 매우 큰 니까라파에서의 운하 건설뿐아니라 그 안전까지 책 임졌다.

이에 따라 로씨야의 전투함선 들과 비행기들은 이 나라의 태 평양 및 까리브해연안과 상공에 서 순찰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니까라과, 아르헨띠나, 브라질 에 로씨야의 전지구위치측정체 계를 리용하는 중계소를 건설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지금 껏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간주되여온 라틴아메리카가 미 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전초기지로 되고있음을 시사해

주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군사적위협 공갈에 맞서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는 자기 의 핵억제력과 무력을 보다 집 약적이고 효률적인것으로 강화 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계속

쎈》급 핵잠수함 에서 시험항행을 하였다. 시험 항행과정에 미싸일이 성과적으 로 발사되였으며 핵잠수함의 성 능이 확인되였다고 한다.미국 주도의 나토가 흑해에 전투함선 들을 계속 들이밀어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로 씨야는 2020년까지 흑해함 대에 80여척의 함선을 새로 배비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은 핵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로씨야동부군판 구에서 군부대들에 대한 불의 적인 전투준비검열이 있었다. 자기의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 하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로씨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 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자기 에게 완전히 끌어당기려고 시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 고있다고 말하고 《로씨야에 있 어서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용 납할수 없는것이다. 서방과의 지정학적대립에서 로씨야측은 언제나 보다 위력하게 행동할것 이다. 》라고 예평하였다.

본사기자 배급희

¬-411598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13003호)(취급승인 제3호)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